

설명절에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

목 도 다같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시편 37:3~6)

사랑의 주님! 새로운 한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 주어진 시간들이 주님의 은총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
시는 삶을 살게 하셔서 생명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248장(통일찬송가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54장 「나의 맘속에 온전히」

기 도 가족 중에서 다같이

말씀나눔 출애굽기 3:1~12(구약 p.84) 인도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

축복과 비전나눔 온 가족이 다함께
(자녀들은 말씀 안에서 새해 비전을 말하고
집안 어른들은 그 비전들을 듣고 기도해줍니다)

찬 송 358장(통일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다같이
기쁨으로찬양 69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마 침 주기도문 다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해”(출애굽기 3:1~12)

오늘은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구정이며, 아직은 1월이기에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듭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한 해를 보내고 얻는 그 열매도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 모두가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1.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라고 부르십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 나이 80세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젊을 때 부름 받는 것이 모세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모세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조건들이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며 당신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성도는 누구도 자신의 능력만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 자기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금년 한 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생명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하나님은 거룩함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거룩한 땅으로 부르시면서 네 밭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거룩함으로 무장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일을 잘하는 것, 그 일을 통해 큰 결과를 내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거룩한 모습으로 그 일을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은 아주 위험합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거룩함으로 도모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양보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가족 모두가 말씀을 따라 거룩함으로 모든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엄밀히 말해 이 일은 모세 자신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개 나의 일, 우리 가족을 위한 일, 이익을 얻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일할 때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더불어 사는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일을 통해서 일의 가치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모두 어떤 일이든 하게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한 열매를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는 일을 할 때 일의 참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하고,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일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2017년,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 가기를 기대합니다.